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로마서 8장. 속죄는 죄를 지으려 하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을 이겨내는 힘을 준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35~40분)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중요한 물건, 성격이나 특성, 은사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다음 질문에 대답한다.

- 어떤 것을 여러분은 가장 상속받고 싶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의 어떤 성품과 특성을 물려받기를 소망하는가?

다음 말씀을 읽는다.

“후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영의 자녀와 육으로 난 독생자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우선권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의 당연한 상속자이다. 아버지의 뜻에 엄격하게 따르는 것, 복음과 그 의식에 대한 순종 및 무한하신 속죄를 행함으로써 은혜에 은혜를 입어 진보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셨으며 또한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복음의 의식에 순종하며, 성령을 자기의 인도자로 삼아 자발적인 순종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영원의 세계에서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지니고 있는 것과 똑같은 진리, 권능, 지혜, 영광, 그리고 승영을 상속받을 수 있다. (교리와 성약 84:38 참조)” (“상속자”, 몰몬 백과사전, 2:583)

교리와 성약 84편 33~40절을 읽고 그 가운데 신권의 맹세와 성약에서 약속된 것을 찾아본다. 상속의 교리를 찾아보면서 로마서 8장 15~19절을 읽는다. 다음 질문에 대하여 생각한다.

-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의 상속에 대한 우리의 잠재력에 관하여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 17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가?
- 18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그것에 따르는 요구 조건들과 비교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공동 상속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우리보다 앞서 간 사람들처럼 권능과 영광과 영원한 권능의 보좌를 상속받아 마침내는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343쪽)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공동 상속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상속자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상속자들과 동등하게 상속받는 사람이다. 각 공동 상속자는 동등하게 그리고 전체에서 나눌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만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다른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한 사람이 모든 권능을 가지고 있다면, 그와 함께 상속 받는 다른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우주가 한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라면, 공동 상속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그 모든 것이 똑같이 속하게 된다.” (브루스 알 맥콩키, 몰몬 교리, 395쪽)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확실한 것이며, 우리는 참으로 그분이 지니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다음 성구를 살펴본다. 갈라디아서 3:26~29; 4:1~7; 교리와 성약 50:26~28; 88:107.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니신 모든 것을 상속받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다음 질문에 대하여 생각한다.

-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그러한 상속을 받을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기꺼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우리가 어떻게 이 상속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아버지의 합당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구주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다음 질문에 대하여 생각한다.

-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가? 우리 각자와 그분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 우리 각자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기회를 그분께서는 왜 마련하셨다고 생각하는가?
-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니신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노력할 때 어떠한 축복이 우리 생활에 오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 찬송가 가사를 읽는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이다. 우리는 언젠가 그분에게로 돌아가 함께 살 수 있으며 또 그분께서 지니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